

# 이제야 살 것 같아요\*

## - 기본학력을 위한 문해력 수업 -



**변준한**

태릉고등학교 교사

### 1. 신규교사, 기본학력에 눈을 뜨다

2021년 3월, 저는 처음으로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을 꿈꿔 왔고, 가르치는 것에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던 터에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품고 있었기에 수업 준비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학습지와 수업자료를 만드는 것이 너무 즐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오만하게도,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친구들을 보며 제 수업을 돌아보기보다 그 친구들을 탓했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마무리될 때쯤, 우연히 ‘기본학력’ 관련 연수 공문을 보았습니다. 사실, 기본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고등학생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수를 들을지 말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눈여겨보았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학생이 배움에 이르는 날을 꿈꾸는

\* 본 글은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한 ‘2021 학습성장스토리 공모전’에 제출하여 사례집에 실린 자료를 <교과서 연구> 원고 방향 및 양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중등 기본학력 전무가 되기'라는 연수 제목이 마음에 와닿아 연수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수를 듣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틀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학력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그리고 그 선생님들로 변화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무언가 해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2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통합사회 1학기 성적이 8~9등급인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교과서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림 1]은 제가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었던 교과서 페이지입니다.

‘기여, 상응하다, 불합리, 호소하다, 막론하고, 보편적,  
취급하다, 분배, 이룩하다, 도달하다, 조화롭다,’

## 1 정의의 의미와 역할

**생각을 열어** •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과 기여 등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피해 입은 것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을 때, 이에 대해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정의의 의미** 플라톤(Platon)은 정의를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 덕목’이라고 말하였고, 공자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천하의 바른 정도(正道)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로서 **정의**를 추구해 왔다. 정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의의 역할** 정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공동체가 이룩한 성과와 공동체가 져야 할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의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알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 전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듯 정의는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유지시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 **개인선** 존엄한 존재인 인간의 가치 및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동선**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림 1 — 통합사회 교과서 (출처 : 비상교육)

15줄의 글에서 아이들이 체크한 단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문적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풀어서 서술한 문장 속 단어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확인하

고 나니 저는 학생들을 닮았던 1학기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업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던 것일 텐데 수업을 안 듣는다고 잔소리를 했으니, 학생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 2. 무모해 보였던 문해력 수업에 도전하다

그렇게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교과서 속 단어를 공부하는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급하게 개설한 수업이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교과서 용어사전 만들기

먼저, 아이들은 교과서 두 페이지 정도를 읽고 모르는 단어에 모두 동그라미를 칩니다. 둘째로, ‘학생들이 동그라미 친 단어들과 ‘사전을 통해 찾은 그 단어들의 뜻’을 제가 나누어준 학습지에 옮겨 적습니다. 자신만의 교과서 사전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같은 학교 국어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전은 뜻 자체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릉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읽기」		
		담당교사 변준환
VI.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학번	
1.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이름	
① 정의(正義, Justice)의 의미와 역할	픽공	
1. 교과서 용어사전 만들기		
단어	뜻	

그림 2 — 방과후수업 학습지 - 교과서 용어사전

## 나. 교과서 용어 정복하기

셋째, 짝공과 공통으로 몰랐던 단어들을 찾아 직접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수업에 재미있는 요소를 넣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짝공 활동을 수업 내내 활용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예문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저는 아이들의 예문이 적절한지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아이들이 그 단어의 쓰임새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교과서 용어 정복하기	
단어	예문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그림 3 — 방과후수업 학습지 - 교과서 용어 예문 만들기

## 다. 교과서 이해하기

넷째, 교과서를 다시 읽고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 짝공에게 설명합니다.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는 등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문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만 확인하여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이 제 수업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3. 교학상장을 몸소 경험하다

#### 가. 학생의 성장

첫 수업 때 아이들이 동그라미 친 단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당황하며, 계획했던 진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채 수업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도를 끝내지 못할까 봐 식은땀을 흘리며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이 수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과서를 혼자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취지의 수업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나니, 내가 정한 진도가 아닌 학생들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추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한 친구에게 ‘이 수업 어땠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답을 듣고 저는 이 수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사실은, 1학기 수업 때 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하나 자기가 찾아보니까 처음으로 교과서가 읽혔다고 합니다. 저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50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해력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저는 학생들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지막 수업 때 이 친구들이 한 페이지에서 몰랐던 단어는 5개 미만이었습니다. 즉, 이제는 단어를 몰라도 문장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요? 뿐만 아니라,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고, 다른 과목에도 욕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 나. 교사의 성장

성장은 아이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수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해력 수업을 진행하며 저 역시 교과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사회 교과서가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자어도 많고, 세세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와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게 이해하고 있던 단어들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는 모르겠지만, 작년(1학년) 초에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을 조사했을 때 한 반에 3명 정  
도만 손을 들었는데, 2학년이 된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보니 ‘좋아하는 과목’에 ‘사회’라  
는 과목이 가장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방학에도 같은 내용의 방과후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두 번째인 만큼 부족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휘에 대한 제 설명이 부족했었기 때  
문에 사서 선생님께 부탁드려 코티칭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두 명이 함께 하  
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자체에 재미 요소를 넣  
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서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학습했던 어휘들을 카훗 프  
로그램을 통해 퀴즈로 맞히고, 이를 바탕으로 팀별 빙고 게임을 진행해 보았는데, 게임  
을 할 때 머리를 앞으로 숙 내밀고 문제를 맞히려고 집중했던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  
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 <품질이나 능력, 시설 따위가 매우 떨어지고 나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 |                |                |
|----------------|----------------|
| <b>A. 간주하다</b> | <b>B. 파악하다</b> |
| <b>C. 취급하다</b> | <b>D. 열악하다</b> |

그림 4 — 겨울방학 방과후수업 퀴즈 화면 일부

#### 4. 기본학력의 중요성에 대해 확신을 얻다

##### 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간단  
한 발디딤대만 놓아 주어도 알아서 뒤통수를 넘을 수 있나 봅니다.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

며 많은 학생을 만날 텐데, ‘왜 못하지?’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겠습니다.


### 나. 기본학력의 나비효과

둘째로, 기본학력이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단어의 뜻만 공부했을 뿐인데, 아이들의 변화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공부의 기본은 ‘이해’인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학생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어떤 학생은 수학과 영어 공부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감이 없어 친구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던 학생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교우관계가 좋아졌으며, 어떤 학생은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기본학력에 이런 나비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도 아이들의 기본학력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다. 기본학력은 공교육의 것

마지막으로, 기본학력은 공교육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 방과 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모두 학원이나 과외를 다녔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수업은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교육은 개별 맞춤형이라 할지라도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까지 끌어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정규수업 시간과 학원 수업 시간을 합치면 하루에 12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저의 첫 방과후 수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이제야 2년차 교사라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수업들을 보고 배우며, 더 좋은 교사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교사를 꿈꾸던 몇 년 전 즈음, 한 드라마를 보며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바로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대사 일부를 적으며 글을 마칩니다.

“상위권 방과후에 못 들어가는 애들을 좀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전교 1, 2등 같은 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필자 소개

2021년도에 교직을 시작하여 학생들과 함께 우당탕탕 성장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2년차 교사이다. 현재 태릉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수업 설계를 고민하고 있고,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